



다시 대한민국!  
새로운 국민의 나라

배포 : 2024년 6월 2일(일)

## 윤석열 대통령, 한-아프리카 정상회의 계기 탄자니아 대통령과 오찬 회담 개최(6.2)

- 18년 만의 탄자니아 대통령 방한 -  
- 경제동반자협정(EPA) 협상 개시 선언, 핵심 광물 MOU 체결 -

윤석열 대통령은 오늘(6/2, 일) 한-아프리카 정상회의(6/4~5) 참석을 위해 방한 중인 「사미아 술루후 하산(Samia Suluhu Hassan)」 탄자니아 대통령과 오찬 회담을 갖고, 양국 관계 발전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습니다.

윤 대통령은 하산 대통령이 탄자니아 대통령으로서 18년 만에 방한해 최초로 한-아프리카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것을 환영했습니다. 하산 대통령은 한국의 K-pop, K-food, K-drama 등을 인상 깊게 느끼면서 즐기고 있으며, 이번에 K-hospitality(환대)에 대해서도 깊이 인식하게 되었다면서 이번 공식 방한이 탄자니아와 한국 간 협력 관계를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습니다.

※ 2006년 자카야 키퀘테 대통령(2005-2015년 재임) 방한

양 정상은 양국이 1992년 수교 이래 우호 협력 관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왔음을 평가하고, 앞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미래지향적 실질 협력을 발전시켜 나가자

는 데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.

윤 대통령은 오늘 아프리카 국가 중에서 처음으로 탄자니아와 <경제동반자협정 (EPA: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)> 협상 개시를 선언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며, 협정이 조속히 체결되어 양국 간 교역 품목 다변화와 교역량 증대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했습니다.

하산 대통령도 양국 간 교역과 투자 증진을 위해 계속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했습니다.

윤 대통령은 탄자니아 내 교량, 철도 등 주요 인프라 구축에 한국 기업들이 참여해 많은 성과를 내고 있다고 평가하며, 인프라 분야 협력을 계속 강화해 나가자고 했습니다.

하산 대통령은 양국이 올해부터 2028년까지 25억 달러 규모의 <경제개발협력기금 (EDCF) 기본약정>을 체결하는 것을 평가하고, 더 많은 한국 기업들이 탄자니아 경제 발전과 주민 생활 여건 개선을 위한 개발 사업에 참여하길 기대한다고 했습니다.

양 정상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핵심광물 자원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양국 간 협력을 강화할 필요성에 공감하고, 오늘 양측이 서명하는 <핵심광물 공급망 양해각서(MOU)>를 통해 양국 관련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습니다. 아울러 양 정상은 이번 계기에 체결되는 <청색경제 협력 MOU>를 통해 해양수산 분야에서도 양국 간 협력 관계 강화를 추진해 나가자는 데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.

※ 탄자니아는 리튬, 코발트, 니켈 등 핵심광물 보유

양 정상은 우리나라의 2024-25년 임기 유엔 안보리 이사국으로서의 활동을 포함해 국제 무대에서도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습니다. 아울러, 양 정상은 북한의 핵, 미사일 개발은 안보리 결의 위반으로, 국제사회가 안보리 대북 제재를 철저히 이행해야 한다는 데에도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. <끝>